

기억력을 높여요! 사구식물 메모리카드

개발자	김현희(태안해안사무소)
사구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사구식물에 관해 메모리카드를 활용한 놀이로 흥미를 높일 수 있다. 사구식물에 관한 이름뿐만 아니라 사구식물의 꽃과 열매 등 특징까지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다.	
활용대상	전 연령
활용시기	사계절
준비물	사구식물 메모리카드
소요시간	5분
제작비용	없음





메모리카드를 섞는다.



차례대로 메모리카드를 뒤집으며 맞춘다.

운영방법

1. 메모리 카드를 뒷면이 보이게 각각 정렬한다. 각 사구식물의 짝에 관해 설명하고 서로의 짝이 무엇인지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.
2. 놀이방법을 설명한다.
(가위 바위 보를 하여 순서대로 한 번씩 카드를 뒤집어 짝을 맞출 수 있게 한다.)
3. 먼저 짝을 다 맞춘 사람이 나올 때 까지 놀이를 진행한다.
4. 마무리와 함께 카드에 나온 사구에 사는 사구식물에 대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다.

향후방향

계절에 따라 다양한 사구 식물의 카드를 추가할 수 있다.

참고내용

- ※해당화 : 장미과로 모래땅과 같이 물 빠짐이 좋고 햇볕을 많이 받는 곳에서 자란다. 잎의 표면에는 광택이 많고 뒷면에는 잔털이 많으며 가장자리에는 잔 톱니가 있다. 줄기에는 가시가 있고 꽃은 홍자색으로 진한 향이 난다. 꽃이 지고 난 8월경에 붉은 색을 띤 둥근 모양의 열매가 달린다.
- ※모래지치 : 바닷가 모래땅에서 자라며 땅속줄기가 옆으로 뻗으며 잎은 흰털이 있어 녹색으로 보이고 주걱형 또는 긴 타원형으로 두껍다. 꽃은 8월 경 피고 하얀색이다.
- ※곰솔 : 바닷가에서 자라는 소나무로 수피의 색이 검은 색을 띄어서 흑송, 해송이라고도 부른다.
- ※순비기나무 : 마편초과의 식물로 햇볕이 좋은 바닷가의 모래땅에서 자란다. 줄기를 뺏을 때 땅을 기며 자라며 잎은 두껍고 표면에는 잔털이 많다. 잎의 뒷면은 은백색이고 7~9월 자주 빛의 꽃이 핀다. 꽃이 지고 난 후인 9~10월 흑자색의 열매가 달리는데 향기가 무척 좋다.
- ※갯메꽃: 메꽃과로 바닷가에서 자라며 잎은 하트모양으로 표면이 두껍고 광택이 나며 꽃은 연분홍색으로 나팔꽃 같은 모양이다. 꽃 지고 난 후 8~9경 1.5cm가량의 둥근 열매가 달린다.

주의사항

- 경쟁심으로 인해 게임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.